

노년기 농촌생활의 새로운 가치



윤순덕 박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노인실

1. 문제제기

우리나라 농촌은 그동안 주로 거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의 노령화 수준이 높아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고 도시와의 복지수준 격차가 커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부정적인 모습만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부각되었고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물론 이러한 부각이나 관심은 농촌의 실정이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농촌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고 농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정책적 논의들은 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농촌지역의 복지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과도한 농업노동과 낮은 소득수준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복지를 위한 정책은 주로 농업인 정책과 동일시함으로써 별개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은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남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농촌 복지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농촌 고령화는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기고 농촌 희생에 대하여 비관적인 진단들이 널리 퍼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농촌과 도시 지역간 복지 불균형 심화, 그리고 농촌 희생의 위기를 극복할 획기적인 전략,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식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1980년대부터 농촌 지역사회的人口 감소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도시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정책들을 실시하여 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많은 연구자들도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이 도시 은퇴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지역사회에 은퇴자들을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다양함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은퇴자 유입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무엇보다 농촌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 정책입안자나 농촌을

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 일각에서도 도시의 과밀화, 국민소득 향상, 그리고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가술이 발달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년기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은퇴 후 정착지(Retirement Destination)로서 농촌지역의 가능성이 새롭게 등장하고, 건강장수의 최적 환경, 노년기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원하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적절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주공간으로서 학문적, 정책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최근에는 예비 은퇴층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과연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했을 때 또는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소수 전문가나 선각자들의 담론에 그치고 있을 뿐 다양한 가치나 효과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매스컴에서도 퇴직 후 농촌에 들어간 도시은퇴자가 농촌에서 생활해보니 이리이런 점이 좋더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선각자의 사례로서 소개되는 정도이다.

2. 노후 농촌생활의 가치에 대한 답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에 대한 논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은퇴 후에 귀농을 하여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사례로서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 소개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농촌·농업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의 식견으로서 학술모임 등에서 주장되어지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의 하나는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농촌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어지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로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개인적으로 주는 의미와 가치를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은퇴 후 농촌이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두 번째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도시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들어와 생활하게 되면 지역경제 발전이나 국가균형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의 형태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수사회 새로운 대안적 삶의 형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에서 논의되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결같이 공해가 있고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도시 환경과 비교하여 좋은 공기가 있고 좋은 햇빛이 있고 경치가 좋다는 점을 들어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심신이 고달픈 도시민이 휴양을 위해 농촌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연과 가까이 생활함으로써 농촌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암, 고혈압, 지방간 등 성인병이나 갱년기 질환을 극복하였거나 많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텃밭을 만들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터지는 것과 그것들이 자라는 재미를 느끼며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육체적 질병은 많은 부분 긴장감과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아침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독서를 하다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퇴직한 후에도 무료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대도시와 비교하여 생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 일각에서도 도시의 과밀화, 국민소득 향상, 그리고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년기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은퇴 후 정착지(Retirement Destination)로서 농촌지역의 가능성이 새롭게 등장하고, 건강장수의 최적 환경, 노년기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원하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적절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주공간으로서 학문적, 정책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최근에는 예비 은퇴층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과연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했을 때 또는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소수 전문가나 선각자들의 답변에 그치고 있을 뿐 다양한 가치나 효과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매스컴에서도 퇴직 후 농촌에 들어간 도시은퇴자가 농촌에서 생활해보니 이리이런 점이 좋더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선각자의 사례로서 소개되는 정도이다.

2. 노후 농촌생활의 가치에 대한 담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에 대한 논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은퇴 후에 귀농을 하여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사례로서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 소개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농촌·농업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의 식견으로서 학술모임 등에서 주장되어지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의 하나는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농촌생

활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어지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로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개인적으로 주는 의미와 가치를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은퇴 후 농촌이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두 번째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도시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들어와 생활하게 되면 지역경제 발전이나 국가균형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의 형태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수사회 새로운 대안적 삶의 형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에서 논의되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결같이 공해가 있고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도시환경과 비교하여 좋은 공기가 있고 좋은 햇빛이 있고 경치가 좋다는 점을 들어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심신이 고달픈 도시민이 휴양을 위해 농촌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연과 가까이 생활함으로써 농촌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암, 고혈압, 지방간 등 성인병이나 갱년기 질환을 극복하였거나 많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텃밭을 만들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터지는 것과 그것들이 자라는 재미를 느끼며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육체적 질병은 많은 부분 긴장감과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아침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독서를 하다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퇴직한 후에도 무료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대도시와 비교하여 생활비가 농촌에서는 이분의 일, 삼분의 일 밖에 들지 않고 도시처럼 집값에 많은 돈을 묵혀 두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도시 살림은 파 한

뿌리도 돈을 주지 않으면 구할 수 없지만, 농촌에서는 조그마한 텃밭만 있으면 힘에 부치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년 내 부식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의형태는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의견이 부분한 부분이나, 잠재적 퇴직자의 농촌이주가 갖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효과가 매우 다양하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정리하면, 인구분산에 따른 도시의 효율성 향상, 농촌의 활력과 공동화 방지, 도시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륜을 지역 활성화에 활용, 지역사회에 새로운 정보 유입과 주민의 사회적 재교육화, 지방세수의 증가, 건전한 도농교류 촉진 등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생의 대부분을 농촌에서 살아온 현재의 농촌노인들이 농촌에서 생활함으로써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들이다. 우리나라 백세인 연구에서 이들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고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의 평균수명이 직업이 없는 사람의 그것보다 더 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건강장수에 있어 농촌이 주는 환경적 요인과 일거리가 장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노년기 농업노동의 참여가 남녀노인 모두의 고독감 해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노년기 농업노동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노인의 생계 및 의료복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농촌지역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오랜 유대관계망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고,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이 노인들의 고립을 막고 일상에 있어 긍정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3. 전문가델피이에 의한 노후 농촌생활의 가치

최근 농촌 고령화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

다는 데 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이 개인적 취향이나 주장으로 이야기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밝혀진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장수사회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갖는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자 노인 및 농업·농촌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유관단체 간부, 방송언론인, 정책실무부서 공무원 등 전문가 패널 38명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친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를 탐색해보고 이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있어 저해요인은 무엇인지를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는 노후 농촌생활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효과 등을 밝히려는 이후 지속적인 작업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도시은퇴인구 유입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조사결과, 첫째, 개인, 지역사회, 국가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는 각각 7영역 23항목, 4영역 22항목, 3영역 20항목이 도출되어 개인적 가치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의 가치 항목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 항목들에 비해 전문가들의 동의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둘째,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로는 '자연친화적 삶과 건강', '여가농업과 건강', '경제적인 생활', '여유로운 생활', '성공적 노후', '친밀한 관계 형성', '제2의 사회활동' 등 7개 영역이었다. 그리고 23항목 중 '자연친화적인 삶, 육체적 건강, 정서적 평온, 저소비 생활, 소일거리의 농업활동, 친환경 먹을거리의 향유' 등이 동의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이외에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생활 향유,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목가적인 꿈의

